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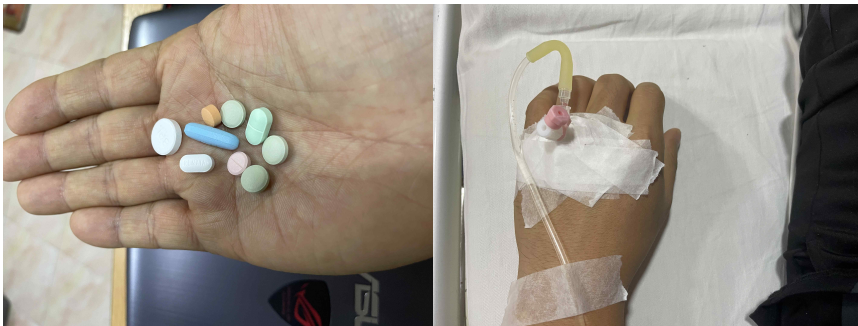
홍수와 가난과 이슬람의 나라 방글라데시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방글라데시 유장수, 김순례(은성, 은찬) 선~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6시간 20분, 공항에서 4시간 10분 대기하고 다시 4시간을 비행하고 나서야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몇번이나 락다운이 연장이 되고 비행 일정이 계속 변경되면서 힘든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가운데도 다시 이땅으로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도착해서 집을 정리하던 중 어느날 은찬이가 저에게 아잔소리 때문에 잠을 못잔다고 말을 하는 데 저만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도 다시 이곳에 적응하면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이곳에 돌아와 보니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들이 보입니다. 저희가 출국하기 이전보다 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곳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 코로나 확진



방글라데시에 도착하고 다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러 다니고 다시 집을 정리하면서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제가 먼저 확진이 돼서 저는 이곳 현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아이들이 고열이 계속되어 다시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 받았고 아내도 냄새와 맛을 못 느끼게 되어 다시 검사를 받고 온 가족이 확진이되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아 이제는 가족이 다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회복된 이후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느껴집니다. 이전에 4년동안 있으면서 한번도 낮잠을 잔적이 없는데 지금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저도 모르게 기절하듯이 잠이들었다가 깨곤합니다.

### 샤프마리 방문



아이들 학교가 중간 방학이 되어 가족이 같이 샤프마리 교수와 학교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함께 시골에 있는 현지 교수를 가지 못했는데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방문하여 교사들과 아이들을 만나고 교수에서 하루밤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뉴라이프 교차



코로나 가운데도 예뻐 모이기에 힘쓰며 아이들을 말쑥으로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아이들로 믿어 안에서 자라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안타까운 소식

구초그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시 목사님의 딸(15살)이 몸에 이상이 생겨 지방에 있는 병원을 갔다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다카에 와서 검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한인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으로는 ‘터너증후군’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데 내년 1월 중순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7개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그리고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한 소식

코로나로 닫혀 있던 신교회가 다시 개강을 해서 뽀라또 형제가 다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보다 든든히 말쑥가운데 세워져 가도록 맡겨진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뽀라또 형제의 부인이 다시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그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야학 운영 계획

센터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팀 회의를 거쳐 센터 1층의 공간을 밤 시간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들을 준비하고, 교사를 구해서 야학을 운영해보기로 했습니다. 센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가정환경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학교를 중퇴하고 밤 늦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야학이 잘 준비되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NGO 설립 준비

저희가 이곳에 체류하기 위해 매년 비자로 인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 신분으로 해서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 졸이며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땅에 도움이 되는 NGO 사역이 잘 준비가 되어 저희가 보다 안정적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연히 천개의 기둥 중에 있는 이 기둥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그 이유를 온전히 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는 하느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 함께 꾀주세요

1. 가족 모두 코로나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피로함을 많이 느끼는 데 체력이 잘 회복되도록.
2. 야학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교사와 재정이 채워지도록.
3. NGO 설립을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도록
4.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사ᄇ들을 감당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